

# 현대 한국교회와 평신도 운동

손 봉 호\*

## I

기독교는 원칙적으로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하지 않는다.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은 그 본래의 정신을 재확인한 것이다. 성직자는 모든 평신도를 완전한 신자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활동하는 봉사자로서, 원칙적으로는 자살 지향적인 임시직이다.

## II

그러므로 역사상 교회가 생명력있게 활동할 때에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성직자가 평신도를 훈련하고 다 함께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이루려 노력했다. 교회가 살아있는 신앙공동체로가 아니라 세속적 세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제도화되었을 때, 성직은 어떤 특권을 누리는 직업으로 변질되고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별되었다.

## III

한국에서도 60년대까지는 “평신도”란 표현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교회는 실제로 평신도운동을 통하여 대부분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그것이 성직자가 제외된 평신도활동이란 인상을 전혀 주지 않았다. 한국의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가장

---

\* 서울대 교수, 사회교육

활발한 평신도운동을 펼쳤고, 그것은 전도, 선교 등 기독교 포교운동을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종교활동 뿐만 아니라 계몽, 국가독립, 교육, 구제, 민주화, 사회정의 운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었다.

#### IV

그러나 70년대 들어서서 성직이 직업화되는 경향과 함께 평신도와 성직자의 이분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산업사회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전문화 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교회가 생명력 있는 신앙공동체가 아니라 그 동안의 눈부신 성장을 통하여 하나의 사회적 세력으로 부상하고 하나의 조직으로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성직이 하나님과 평신도를 섬기는 봉사직이 아니라 사회와 교회에서 특혜를 누리는 전문직으로 변질됨에 따라 평신도는 성직자의 섬김을 받는 대상이라는 위치에서 교회성장의 수단과 가르침과 다스림을 받는 수동적인 교인들로 전락하였고, 그 신앙적 활동은 교회 안에서 성직자를 돕는 것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따라서 평신도들은 신앙활동에서 자주성, 자발성, 책임의식을 상실하고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는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공헌도 그만큼 미미해지고 있다. 교회 안에 국한된 교회성장만을 위한 평신도활동은 궁극적으로 올바른 교회성장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 V

한국교회는 기독교 본연의 모습과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평신도는 사회를 섬기는 위치로, 성직자는 평신도들로 하여금 사회를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훈련하는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현재의 상태가 계속되면 한국교회 자체가 사회의 변두리 현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사회는 기독교로부터 얻어야 할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기독교는 세상을 섬김으로 그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하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 자체의 내실도 기할 수 있다.

## VI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평신도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개교회주의, 교회성장, 교단 등이 우상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과감히 탈피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제도적 껍질을 깨고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 VII

평신도운동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신학적으로 성과 속의 이원론을 극복해야 한다. 신앙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자신의 직업이나 일상적인 삶과 사회활동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고 아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 신앙을 진실한 것일 수 없고, 특히 기독교 신앙이라 할 수는 없다. 교회와 사회, 성직과 평신도, 예배와 삶, 기도와 노동, 전도와 봉사를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보는 한 기독교 평신도운동은 건전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 VIII

다종교 사회에서의 기독교 평신도운동은 도덕성 회복, 사회정의 구현, 민주주의 신장, 환경 보호 등 철저히 보편적인 가치의 강화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모든 활동은 기독교 세력의 확장이 아니라 전적으로 봉사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섬기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확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IX

사회를 섬기는 평신도활동은 기독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이며, 성직과 교회성장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들이다. 그러므로 활발하고 건전한 평신도운동을 창출해 내지 못하는 신학과 목회는 올바른 신학, 성공한 목회라 할 수 없다.